

“가슴에는 원광을, 눈은 세계로”



진 실 (참)
용 감 (힘)
봉 사 (덕)

가정 통신문

<http://www.wonkwang.hs.kr>

원 광 고 등 학 교

전북 익산시 무왕로 31길 139

TEL (063) 832-6612

FAX (063) 832-6296

담당부서	보건실	담당자	이00	연락처	063-830-1414
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

제 2023- 165호

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제3호



마약류 사건,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



교육부



한국교육환경보호원

청소년이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실제로 있을까요?



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(19세 이하)

- ✓ 최근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
- ✓ 또한 피해자로 시작해, 결국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출처: 마약류 범죄백서(대검찰청, 2023)

! 사례 1

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후 사용한 청소년



- ✓ 의료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하고, 정해진 양을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.
- ✓ 그러나! 의료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고, 인터넷에 올라온 판매 글만 보고 구매하여 사용한 청소년이 있습니다
- ✓ 이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거래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※출처: 'SNS 등서 마약류 '나비약' 불법거래한 102명... 무더기 송치', 메디컬투데이(2023. 07. 29.)

! 사례 2

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,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청소년



- ✓ 판매상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를 사용하고, 중독이 된 청소년은 이후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.
- ✓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깊이 발을 담근 청소년은 뒤늦게 후회하였으나,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.
- ✓ 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,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

※출처: '호기심에서 시작... 직접 매수 • 판매까지, 고교생 파고드는 마약', 서울경제(2023. 05. 06.)

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**불법**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청소년



- ☑ 특정 질환(말기 암 등)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**성인만이 처방받을 수 있는 항정신성의약품**을, **불법으로 처방받아** 사용한 청소년이 있습니다.
- ☑ 결국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공원, 상가 화장실, 심지어 학교 내에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.
- ☑ 연루된 청소년 **모두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처벌**을 받았고, 일부 청소년은 **심각한 중독증상으로 치료**를 받았습니다.

※출처: '의사가 처방했는데 뭐 어때요... 마약에 빠진 아이들', 서울신문(2021. 10. 31.)

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는 **불법**입니다



- ☑ 특히 판매자가 마약류인 것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**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!**
- ☑ 구매 후 **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**받습니다.

마약! 호기심조차 위험합니다

- ✓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**마약류 사용**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✓ **마약**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고,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
- ✓ 자녀가 **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**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

상담 및 교육기관



✓ 한국마약퇴치본부

: 1899-0893

- 전국 13개 지역 시도지부 방문, 편지, 메일, 전화상담 가능
- 의료기관 치료 연계



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



✓ 학생건강정보센터

: <https://schoolhealth.kr>



입원, 외래 치료 및 상담기관



✓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

✓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

마약범죄 신고기관

✓ 경찰: 112

✓ 검찰: 1301

※ 상담, 교육 및 치료 기관에서 상담시 모든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.

※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, 주변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.

2023. 11. 06.

원 광 고 등 학 교 장